

청춘 배틀, 넉넉히 이기는 방법



아름다운 기독청년을 소개합니다!

석지원

영국 LSE Contemporary Urbanism MSc. 졸업
한양대학교 건축공학부 학사 졸업
현재 기획재정부 근무

아프니까 환자다

희망의 상징이었던 '젊음'이라는 단어가 생기를 잃고 있다. 최근 SNS에는 과거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던 책 제목인 '아프니까 청춘이다'를 비꼰 '아프니까 환자다'라는 문구가 인기다. 아무리 발버둥 쳐도 현실적으로 나아지기 어렵다는 것을 모두가 알기에 마음이 병들어 버린 것 같다. 기독교 청년들이라고 현실이 다르진 않다. 세상은 원칙과 실력만 가지고 승부하기 쉽지 않고, 결혼도 신앙만으로 되지 않는다. 정말 인맥관리를 남들처럼 하지 않아도 될지 불안하기만 하다.

실제로 눈물로 기도하는 청년들이 예배처소 마다 넘친다. 많은 청년들이 주중에는 직장, 주말에는 교회에서 헌신한다. 치열하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어두운 세상을 변화시키는데 쓰임 받는 요셉, 다니엘 같은 사람이 되기를 주께 간구한다. 그런데 세상을 닦아가는 한국 교회의 현실에서, 곳곳하게 신앙을 지키는 게 쉬운 일도 아니건만, 어찌된 일인지 주님은 속 시원히 응답해 주시지 않는 것 같다. 역시 현실에서는 세상의 방법이 정석인 것인지 의문마저 생긴다. 한 개인의 성공을 통해 넓은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려는 것은 분명 청년이 가질 수 있는 바람직한 소망일 것이다. 그러나 그 소망을 이루는 방법으로 추구하는 '이 시대에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올바르게 정의해야 한다.


영향력 있는 리더?

이 시대 미디어는 여러 영웅이나 리더를 만들어내고, 또 그들을 통해 메시지를 전파한다. 리더가 되고 성공한 삶을 살아야 소위 영향력을 가진다. 결국 미디어에 익숙해진 젊은 세대들은 세상에 영향을 끼치려면 눈에 보여질만한 힘과 능력을 얻어야 한다고 믿게 되었다. 더구나 기독교 내에서도 여러 매체를 통해 은연중에 스타를 양산해내고 있고, 갈수록 더 많은 스타 기독교인이 생겨나고 있다. 많은 이들이 그들처럼 성공해서 '영향력 있는 리더'가 되기를 원하기 때문이다. 반면, 고난을 드러내거나 자랑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다. 환난을 주님이 주신 것으로 인정하기보다는 장애물로 생각한다. 삶의 고난도 내게 유익이라는 바울의 고백과 달리 그저 영적 공격으로 인식한다. 그러다가 끝내 그 문제가 극복되지 않으면 실망하고 신앙마저 흔들리게 된다. 분명 삶으로 주께 영광 돌리는 모습을 꿈꾸며 달려왔는데 어느 순간 진정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 헛갈리는 것이다.

바울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롬12:2)'고 권면했다. '이 시대'는 이 시대의 신(gods)이나 정신(spirits)을 나타내는 바울의 표현법이라고 한다. 세상은 개인의 성공으로 스스로의 가치를 증명하고, 우리의 모든 필요를 스스로 채워야 한다고 말한다. 그러나 성경의 가르침은 정반대다. 세상의 통치자 하늘 아버지가 우리를 자녀 삼았고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신다고 하셨다. 즉, 우리가 주의 자녀가 된 이상, 스스로의 존재와 그 가치를 증명하기 위해 세상적인 돌파구를 끊임없이 간구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더구나 애초에 주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복은 세상 가치가 아니었다. 물론 욕과 솔로몬의 예처럼 부귀영화도 주실 수 있지만 그것은 축복의 본질이 아니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가장 높고 영화로운 곳에서 가장 낮고 비천한 자리로 스스로 오셨는데, 우리는 말로만 주여 주여 하면서 십자가의 도를 거부하는 것이 아닌지 돌아봐야 한다. 나를 세상에서 높 이려는 것은 주님의 옆 자리를 놓고 경쟁하는 열두 제자처럼 헛된 일일 뿐이다.

소망으로 넉넉히 이기는 청춘

우리가 예수 안에 소망을 품은 자로서 살면 세상을 넉넉히 이기게 될 것이다. 반면 돈, 명예, 힘과 같은 세상의 기준을 따라 살면 끝없이 다음 목표를 향해 초조해질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의 기준이 세상과 다름을 성경이 증언하기 때문이다. 바울이 설명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고후 6:10)'였다. 어찌 보면 '근심, 가난, 힘없음'으로 대표되는 이 시대 청년과 같다. 비록 세상에서는 대접받지 못하고 기댈 곳 없는 가련한 자이지만, 우리는 주의 자녀 된 부요하고 존귀한 자임을 기억해야 한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힘없고 연약한 우리 모습에 영향 받지 않으신다. 그러므로 세상이 주목하는 우리의 외형적 성취보다는 성도의 정체성을 깨닫고 그에 걸맞게 살아가는 청년들이 이 세대를 바꾸게 될 것이다.

역사가 증명하듯, 세상이 정의롭거나 공평했던 적은 없다. 그러나 주님은 세상보다 크고 위대하시며, 세상이 버린 고아와 과부까지 돌보시는 분이다. 자녀인 우리가 부끄러워해야 할 것은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이 아니라 하나님 자녀의 삶을 누리지 못하는 것이다. 성공해야 영향력이 있고, 부요해야 헌신할 수 있다면 우리가 세상을 이긴 자의 자녀라 할 수 있을까. 세상에서 힘없고, 형편이 넉넉하지 못하고, 뭔가 특출하지 못한 것으로 낙담하고 주저앉아 있다면, 십자가 도리로서는 전혀 할 말이 없는 것이다. 어제 혈혈단신 기초수급대상자로 살아온 한 70대 어르신이 1천만 원의 거액을 사회에 다시 헌납했다는 기사를 보았다. 정부 세금으로 받는 지원금을 쪼개어 모은 돈이라, 오히려 구청에서는 그를 걱정하여 여러 번 만류했다고 한다. 그러나 그는 내가 이 사회에서 받은 것이 너무 많아서 돌려준다고 했다.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보다 넉넉하지 못할 이유는 없다. 그러나 혹여 우리가 그 정도 실력이 없더라도 주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다. 오히려 격려하시며 승리를 약속하셨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롬 8:37)' 이렇게 크고 신실한 주님의 사랑이 우리 삶의 유일한 자랑이자 근거이다. 

'청년연단'은 기독교청년의 고민과 갈등, 소리를 담은 창구입니다.

문화, 세상이슈에 대한 기독교청춘의 파릇파릇한 생각을 보내주십시오.

보내실 곳 (이름, 이메일, 연락처) : editor.worldview@gmail.com